

3. 둔포면

가. 둔포면 마을 1 (둔포리)

1) 조사일정

1993. 6. 28., 전연숙 기록

조사 첫날부터 비가 내렸다. 사전 조사지에 없던 둔포면을 조사하게 되었다. 우선 면사무소에 들러 마을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으나, 면사무소 사람들의 무관심한 태도 때문에 둔포리에 관한 자료를 얻지 못하고, 일단 가까이 있는 둔포2리 노인회관으로 향했다.

그 곳에는 약 40여명의 노인들이 있었지만, 이야기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조사자들의 끈질긴 유도 끝에 김덕경씨로 부터 <토정보다 예지력이 높은 소금장수>, <맹정승의 기이함>, <토정과 욕심 많은 아전>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리홍남씨로 부터 <天氣를 아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못 이겨 현감자리에 머문 토정>, <인물을 알아 본 맹정승> 이야기를 들었다. 리홍남씨는 율곡선생 이야기등 다른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나머지는 내일 해주기로 약속했다.

둔포리 노인회관을 4시 30분 쯤 떠나, 다시 면사무소에 들러 담당자로부터 마을현황과 기타자료를 얻은 후 숙소로 돌아왔다.

2) 마을 개관

【둔포면 마을 1】

337-870 충청남도 아산군 둔포면 둔포리

1993. 6. 28., 이상은 조사

둔포면 둔포 2리는 20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농촌 마을이다. 남녀별 인구를 살펴보면 남자가 약간 더 많다. 주민들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살기 때문에 마을이 한가로운 농촌마을의 모습을 보여준다.

3) 구연자

【둔포리 구연자1】

음봉면 원남리, 김덕경(金德京) 남, 79

1993. 6. 28., 이은화 조사

농사를 지으며 현거주지인 음봉면 원남리에서만 79년 정도 살았다. 흰 수염에 약간의 검은 머리가 섞인 흰머리로 두꺼운 안경을 썼으며, 오른쪽 눈이 더 나쁜 듯하다. 아래쪽의 앞니만 있다. 말할 때는 손짓을 많이 하며 온갖 몸짓을 섞어 한다. 딸보단 아들을 무척 중시 여기며 아들이 최고라고 강조하는 분이였다.

청중들은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거들어 주곤 했으나 조용한 분위기였다.

구연자료에는 <토정보다 예지력이 높은 소금장수>, <맹정승의 기이함>, <토정과 욕심 많은 아전> 등이 있다. 수득방법은 옛날 노인분들께 들었다고 한다.

【둔포면 구연자 2】

음봉면 신정리, 이흥남(李興男), 남, 78.

1993, 6, 28., 이은화 조사

아산군 음봉면 신정리에서 평생을 살았으나 중간중간 황해도와 전라도로 이주하여 살기도 했다고 한다.

학력은 서당에서 한문수학(이승만대통령과 함께)을 하였고 역시 직업은 농사이다. 얼굴과 손이 좀 검은 편이고 머리술이 적으며 머리 색깔은 회색빛이고 안경을 썼다. 볼에 깊은 주름이 있고 항상 양반다리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다. 말할 때 발음이 무척 정확하다.

오른손을 들어서 손짓을 하며 구연 중간중간에 ‘쫓쫓’하는 의성어를 자주 낸다. 생각이 안 날 때는 눈을 감으며 이야기를 한다. 아들 자랑을 무척 많이 했으며 특히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것과 대통령과 같이 서당을 다녔다는 추억얘기를 많이 하였다. 그리고 청중들이 거들어 주면서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좀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구연 자료에는 <天氣를 아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못이겨 현감에 머문 토정>, <인물을 알아 본 맹정승> 등이 있다. 수득한 방법은 진사를 지낸 분들께 들었다고 한다.

4) 설화자료

【둔포리 설화 1】

둔포면 둔포2리 노인회관, 1993. 6. 28., 전연숙, 이상은, 이은화 조사

김덕경 (남, 79)

토정보다 예지력이 높은 소금장수, 맹정승의 기이함 토정과 욕심많은 아전

둔포 1 앞

교과서에 있으면 덕수이씨에 충무공이란 양반이 이 산소가 여기지, (조사자: 예 예. 음봉면에 있는 거죠.) 예. 음봉면, 음봉면 산정리안에 있어. 그 양반이 역사에 긴무하고 그 양반하나가 좀 뭐지하지 자랑할 빛이고 없습니다. (청중: 그건 학생애들이 다 알지.) 그 양반 자랑이나 한번하지 뭘, 특별히 내 세울 게 없어요. (조사자: 충무공이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나요?) 응? (조사자: 충무공이 어려서도 총명했나요?) 그럼 응, 그 양반이 충무공이 (청중: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예요. 한 3학년이나 뭘, 다 아는 걸 뭘.) 저 덕수의 서정리 하고 그 사람이 저기 저 변썩지 (녹음불량) 역사에 따라 저거하지 이 분이나 자랑하지 아산에선 더 자랑할게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을 따지면 객주집이랄까, (조사자: 예) 그 뭘지 소금, 이 유래로 할까! 소금을 잔뜩 사갖고 여기 소금을 짚어지고 저 진천이나 등어리에다 짚어지고. 전부 여기서 갖다가 먹었습니다. (조사자: 소금은 어디서 들여온 건데요?) 저 백, 백석포 포구에서 들여 왔어요. (청중: 백사서 들여온 게 아니라, 저

난양서) (녹음불량) (조사자: 음, 그때 거기에 객주라든지 여각이 많이 발달했을 꺼 아니예요? 그때 뭐 유명했던 기생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없어요?) 뭐, 기생이나마나 여기어디 둔포라가서 둔폰지 (녹음상태 불량) (조사자: 밀두리요.) 밀두리란 데가 있는디, 거기가 달기불이라는 것이 지금 생겨있습니 다. 달기불이라구 강가 끝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산이 있어. (조사자: 예 예.) 있는디, 한산 이씨에 토정 이란 분이 있어. 토정이란 분이 (조사자: 예. 이토정이요) 응 이 토정이라는 음 한산 이씨에 이토정이라는 분이 있는디 그가 시내를 다 안다 그리야. 안다구 하는디 밀머리가 그 달기부리가 터져서 들어 올 테니 밀머리란 데가 아주 삭, 절판 날판이여. (조사자: 예) 그런데, 토정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으로 따질 것 같으면 열두 시 이 새벽 같으면 새로 한시쫓이면 터져 들어오는 거. 그런데 소금 장사가 말이여, 옛날 소금 장사라면 등어리다가 짙어지고 댕기는 분이 있어. 소금을 갖다가 고기다가 이렇게 받 쳐서 노는 기여. 받쳐 놓고서 요기서 가만히 이렇게 드러눕 자는 거. 자니까 그 토정이란 분이 아니 게. “여보.”하구 깨운당게. “왜 그라우?” 그 소금장사 하는 말이 “왜 그라우?” 그랬더니 그 토정이 “저기에 올라가시오. 여기로 잘 못하면 여기 터져 들어오면은 당신 죽을께요.” 그렇게 말하거든 그러 니께 소금장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음, 소금장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나 못살고 세상 (녹 음불량)” 이렇게 하고 그라거덩. 게,아닌게 아니라. 확하니 들어왔단 말이야 근디거 (청중: 속설) 달기 불이라는 디 그 소금 장사가 숙각테기 받쳐논 데 여까지 찰름하고 그냥 말고선 (청중: 그래서) 그러드 니만, (청중: 그래) 여기는 여기만 남은거야. 이게 달기불이야. 그래서 달기불이야. 이게 그 아산에서 옛날 역사에 그 한 쪽에 있는 얘기여. (청중 : 그리고 저) (조사자 : 그러니까 토정보다 소금장수가 더 용하다는 얘기죠?) (청중 : 그렇지 그렇지. 소금 장수가 유명하다는…….) 토중 선생은, (청중: 토정은 피난 하라구 인저) 내 걱정하지 말구 당신이나 살어라는 기여.(청중: 너무 아는 체를 하지 말라 인제 그런 얘기.)

(청중: 우리 한산이가에 가까이로서는 이토정선생 아닌겨.) 한산이씨여? (청중: 예. 그런데 거기) 아 니 한산이씨는 어디파요? (청중: 인작용이라는) 인작용. (청중: 아 근데, 아, 근데 아버지 산소가 다른 산소는 봉분이 엄청 커도, 토정 산소는 봉분이 얼마 안 되요.) (녹음불량) 토정이 아산 (녹음불량) 맹 사성이라는 이름이 그 맹씨가 신창 맹씨여. 신창맹씨디, 그분이 이 온양에 소라 저, 소라산이라는 산 이 있어. (조사자: 예?) 소라산이라는 (조사자: 소라산이요?) 응. 예. (조사자: 설화산?) (청중: 소라산 소라.) (조사자: 예. 예.) 근디 거기에 정잘¹⁾ 타고서 난 양반이여, 그 양반이. 맹정승이라는 양반이 맹 사성씨디 그러가지구서, 그 옆에 가서 정승을 했는디, 서울을 뿔꾸부러진 거먹 암소를 타고시나 매일 저길 했던 말야. (조사자: 어딜 갔다와요?) 온양서 거기를 옛날에 뿔꾸부러진 거먹 암소를 타고시나 서울을 (청중: 주름을 잡아매긴 놈이여.) (조사자: 축지법을 썼나요?) (청중: 음 그렇지 축지법, 주름을 잡아서) 그래서 (청중: 한발짝 디면 열발짝 그냥 주름을 잡고 열발짝이 뭐야, 그냥) 그래서 (청중: 날 라다녔다는디 그냥.) 그럭커구. 헌디 그 맹정승이란 분이 언제든지 아주 쑥맥같아게 야. (청중: 삼십분 이면 갔다오고 갔다오고 그랬다는디 지금 비행기보담도 더 빨랐지 뭐.) 뭐 지금덜 항상 뭐시 이랬어 요, 저랬어요 하고 정승이래도 그렇게 착한 분이 저 맹정승이여. 그런데 그 맹정승의 그 저기 맹정승 의 그 뭐시를 저기 저 뭐여, 케이비에스에서 저기해나가 해갔단 말이여, 해나갔는디 그 증손이 누구 냐 같으면 맹일용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디 (조사자: 맹일용이요?) 응, 그 자체가 아, 맹뭐시여. 그 사 람이 저 대방면장까지 하구 그랬지, 그게 종손이여, 그 맹씨의 (조사자: 대방면이요?) 예. 예, 원래 대 방면이여 거그가 맹정승 그 나시는 디가 대방면, 대방면 수천리라는디 음, 그거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주섬주섬 말한 게~. (조사자: 아니요.)

그분이 아, 그 산창을 잘하고, 하는 분인디 아전 뉘살이 있을적에 그 아전이구 뉘시구 자시구 저
 고룡산이라는 산이 있어. (조사자: 예 예.) 거기 가 살라고 응, 거기를 낮에는 놀고 하느디 (녹음불
 량) 길다니다, 전설이여. 있는디 있는디 아 이거 그 분은 지네생즙을 먹고 살았어. 산 지네를 잡아가
 지구, 산 지네를 잡아가지구. 그 지름을 이자 가지구 마시구, 잔 분이야. 근디 산 지네를 잡아가지고
 지름을 마시면 밤 생울을 깎아가지고설랑, 먹어야 산다는 기야. 근디 밤 생울을 그중 혹시 못 감춰서
 옛날 상투 올려 놓지 상투 올린데다가 한개를 딱 넣고서는 거길 갔느디, 이 이저 지네 생즙을 먹고서
 는 뉘시 그 아전 봉살애기 할때 금 금을 차지할려구 말이야. 새끼는겨. 밤 생울을 칠하는 걸 생울을
 생울은 하영거든. 허가지구, 밤 같은 아 그래가지고 먹을라니께, 지가 지네서 돌아갔지 어기 놈을 생
 각 못했어. 그런(녹음불량) 돌아가신 뒤에 말이여, 그 아전이라는 사람이 가서 게 비었던 말이여. 근
 게 그 분이 떠들어 본들 (청중: 누워 있는) 떠들 수가 있어 떠들어 나야 뉘하 떠들려야 다리가 떠들려
 야 그러서 그 뉘 그런 역사가 있는 거지. (조사자: 근데요, 거기에서 계룡산까지 산책을 갔어요?) 어?
 (조사자: 계룡산까지 산책을 갔냐구요.?) 아 고기가 고긴디 안골하고 얼마 안 되요. 안골이라는 데가
 거 아주 (청중: 여기서 뵈는 거 그거 산이여) (조사자: 계룡산이라면 공주에 있는 거 아니여요.) (청중:
 아니 고령산이라고) (조사자: 고령산이요?) (청중: 고령산이라고 바로 여기에 있어.) (조사자: 고령산이
 요?) 응. (청중: 산이 높거든.) 빼쪽 (청중: 요 근처서 제일 높지 그 산이.) 그런 역사가 있는디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우린 알도 못하고 (청중: 들은 풍월이지 뭐) 응, 들은 풍월이고 뭐 응, 얘기한 기
 여.

【둔포리 설화 2】

둔포면 둔포2리 노인회관, 1993. 6. 28., 전연숙, 이상은, 이은화 조사

이흥남 (78세, 남)

천기를 아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못이겨 현감자리에 머문 토정. 인물을 알아본 맹정승.

둔포 1 앞

옛날에 토정선생이 어서 사셨냐하면 안골원이였었거든 그런디 형감이여, 그 제대로 큰 골, 큰 골도
 아니고 그런디 그 냥반이 하루 썩전에 자고 일어나서 새벽헌디 천기를 보니께, 천기천비가 이상하거
 든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아침을 조숙으로 지어라 오늘 워디로 행차를 하겠다, 하고 나니께 아침을
 참 일찍했느디 먹고 니니께 새벽이여. 그런디, 짚신을 토정선생은 자수치를 신느디 자 자수치를 신었
 다거든 토정이 그런디 짚신을 맞춰서 신어. 그러니께. 짚신을 맞춰신은 짚신을 내서 신구서 가느디 공
 주를 가느디 공주- 공주장엘 안골서 가고나니께 그때가 이월달인디 땅이 녹기시작해여, 이월달에 땅
 이 얼었다. 그런디,이 땅이 녹느디 신발을 들여다보니께. 신발이 총만 남고서 바닥이 다 닳았어. 짚신
 이 하,하, 디디면 땅바닥을 던디 진발로 이거 갈수없고 난처 하거든 공주장엘 들어 섰느디 우편 안 노
 인네가 소복을 하고서 지팡막대에다가 짚신을 한켜리 달아가지고서 장으로 들어가더니 어물가에 가서
 그냥 섰는겨여. 그 저 짚신이 저게 짚신이나 한켜레 사신어야 겠다. 쫓아가서 보니께 짚신이 커뵈여,
 그 부인 “짚신 파실꺼유?”, “예.”, 보니께 자수치 짚신이여 뉘 한자 짜리도 안 신느디, 이상하거든
 “웬마요?” 그라니께, “오십전이유.” 짚신 한켜리 두전 오픈 했거든 그때 근디 오십전이면 두 줄 값이
 여. 하, 이거 그렇게 큰 짚신을 맞춰신느디, 탄딘 없고 혈수없이, 댓냥을 주고 사서 그 놈을 신고서
 괴상해여 그러서 그 노인네가 뵈하나하고 뒤를 쫓아가 보니께, 굴비라구 있어. 조기 그 절여서 슬쩍

말린것. 그걸 한 마릴 사서 짬뽕막대 갖다가 한대 치우더니 지팡막대 (녹음불량) 짚고 막 가는 거. 쫓아 갔지. 쫓아 가다보니까, 이월달엔 해가 짧거던 저녁때쯤 되니까 가물가물가물 가는데, 안 되겠어... 그러서 소척을 났단 말이여.(조사자:소척을요?) 소척. (조사자:소척요?) 소척을 났는디도 가물가물하게 가. 그래 대척을 났어. 뭐냐 하면은 토정선생이 축지를 하겠나매. 여기서 서울 한번 디디면은 천천히 가는 게구, 여기서 자, 신의주나 어디 디디면은 게 대척이여. 축은 산을 막 주름 잡거든. (조사자:예, 소척 대척이요!) 예... (청중:주름을 잡고 간다 그말이여.) (조사자:예) 소척을 놀라면 여기서 천안이나 대전이나 한 발짝 놓는게구, 대척을 노면 저, 부산을 그냥 건너 뛰는 거. 게, 소 소척을 놔도 맨날 그 지경이여. 그만큼 가. 대척을 놔도 그 만큼 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네가 누구여, 그래서 결국은 자꾸 가다 보니까, 해가 저물었어,. 해가 다 갔어. 다갔는디 어떤 산중으로 들어가더니 으쩍 옴팡짐으로 다가 문을 탁 열고 들어가고 마는 거. 게 깜깜해 깜깜해서 으디로 갈 디도 없고 산중 속인디 으떡 게 가선 어둠기도 하고 안 뵈어. 게, “주인냥반, 주인냥반.” 부르니까 역시 그 부인네가 나와. “왜 찾으시우?”, “나 그런데 아니라 으짜다 보니까 산중으로 왔는디 오고 보니까 갈디가 없시우. 좀 자고 으면 좋겠는디 좀 자구 갈 수 있느냐?”니까 아, “우린 단칸방인데, 우리 딸이 큰 딸이 하나 있는디, 하영든 들어오시유. 저녁이나 잠수야지유.” 정 이리왔으면 게 들어가 있는 게 “였다, 쌀 받아라.” 그라고 “이 조기 이거(녹음불량)구워드려라.” 내 보냈는디 그라고서 야 쌀하고 이 조기하고 가져가거라 받 받으면서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상을 그냥 들여와 발써, 밥을 했어, 그 쌀로 조기도 노랗게 구워오고 주메주메 상들여 오메 했어 그 괴상하거든 먹고서 씨시가 떡 앉았는디, “이 방이 비좁어. 그러니까 널랑은 저 우묵에 앉어 바느질이나 하구 이 뭐처럼 오신 손님 아랫목에다가 자리 해드리구 난 저 아랫동네에서 자구서 내일 식전에 일찍 오마.” 거 딸이 “예.” 그라구 앉아서 하는디 그 자릴 내주구서 토정선생이 드러냈단 말이여, 그자리에 드러눕서 자는 칩하고 결눈으로다가, 시악시를 보는디 거 천하 일색이여. 그라구 커. 머리가 지루하니 땅바닥에 닿고 하는디 다리를 갖다 이렇게 뭉게구서 바느질만 이렇게 등잔불에서 하는디 (녹음불량) 토정선생이 자는척 하고서 다리를 하나갖다 시악시 다리에다 똑 이렇게 이렇게 (녹음불량) 었었던 말이여 었으니게 시악시가 다리를 두 손으로 가만히 들어 그 옆 쪽으로 치워놔, 아, 그러니 혈수 있나. 시악시가 남자라면 그 시악시를 어떻게 건드리겠어. 그 인제 얼마있다가 ‘에이, 또 한번 해볼까나.’ 속으로 안자지, 그 시악시 때미. 잠이 오겠어, 거. 그래서 또하니까 또 가만히 그렇게 옆때기에다 가만히 놓그든, 하,하, 그 이제 두번을 해도 안되겠다고 얼마 드러 있다가 잠꼬대하는 척 하고서 ‘꾸’ 소리를 지르고서 두 다리를 번쩍 들어다가 낚쩍다리에다 갖다 툅 울러 났단 말야. 그러니까 “여보, 일어나유, 일어나 일어나라구.” “아, 왜 그러는냐?”구 일어나 “당신 한국사람이지?” “그렇다.”구 “한국서 왔지?” “그렇다.”구 “안 한국의 아산 안골 당신이 토정이여.” 그런게, “토정 선상이여?” “그렇다.”구 “그짓 그짓말 잘못하면 요기서 가냥 안 뒤 못가게 할튀야.” 그러니까 (녹음불량) “예가 어딘지 알어? 예가 대구 쉼룡산이여.” 아산 안골서 대구 쉼룡산이 칠만리라는 걸 한국사람은 몰러유. 그래서 아산 안골서 대구 쉼룡산이 칠 칠만리여. “여가 대구 쉼룡산이여. 내가 자기를 끌어들일 적엔 천길을 보고 끌어들일쩍 어쩍해서 끌어 들었느냐 하면 세상걸 모르는 토정이여. 그래서 당신을 끌어 들였더니 쪼끄만 쪼끄만 나라 왕이래두 하나 할 줄알구 자길 끌어들인 거.” 그러디 왕 쪼치구 골살이두 쪼끄만 골 안골같은 현감 현감 골이거던, 골이 큰 골 저거 황해도 연안골 갈턴디서 골사리현 사람은 정승 판서도 되구 영의정도 되는디 현감 골 한이는 정승 안 주거던. 쪼끄만 데라 그러니까 어이 가라구. 안 가면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있다는그 손택에 거기서 죽지. (녹음불량) 그러니까 밤중이, 밤중이 지났는디 거기서 떠났단 말이여 떠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되겠어, 집으로 가야지 그냥 거기서 부텨 대척을 논거여. 아산 안골 오니까, 첫 닭울드래여. 게, 그게 끝이여.

게 또 한마디 해여? (조사자:예, 님을 잃었어요) 맹정승 얘기를 해야겠네.(조사자:네) 맹씨네가 요전
 으로 보통으로 인물이 좋은 사람이 읊어. 으쨍고 그러니 누가보던디 뻥히보기에 이렇게 못생겼어. 근
 디 속은 똑해가지고 튀이고 인자 잘하고 하는디 사람은 못 생겼어. 그 맹정승이 꼬부랑해졌다고 꼬부
 랑 맹정승이라 맹정승이 정승으로 있는디 청지기라구 (녹음상태 불량) 쪼마한 애를 데리고 텅기는디
 어딜 가는디 동짓달인디 으쨍게 추운지 갈수가 없어. 얼어 죽겠어. “애, 못가겠다. 못가겠다는디 어디
 사채를 좀 정해라.” 그러니께, 사채를 정해유, 못가겠어, 가다 영 얼어 죽지 못가겠어. 그러니께 사채
 를 정해. “저기 오두막집 하나가 있는디 거기가 어떻게 주무시겠수?” “아이구 오두막집 아니라 아무
 디래두 하루 저녁만 자고가면 되지않니.” 가니까 주막집이여. 근디 사채를 정하려고 (녹음불량) 자고
 갈 데를 찾으니까 그 안 노인네가 나오더니 “아이, 여기는 방이 하난디 손님이 이렇게 오면은 함께
 주무실래요?” 그런다구, 그래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사채를 정했는디 아랫목에다가 평판을 딱 치고서
 자리를 깔아서 이렇게 떡허니 해주거든, 그니까 앉졌지. 얼마 앉졌으니까, 워서 참, 골살이나 했는지
 그런 원이 지나 가면서 늙은 디도 좁다고 해가며 이게 얼어 죽게 생겼으니 사채를 어이 정하라구, 게
 거기다 사채를 또 정하는 거. 그러니께 그이는 아 삼인누각을 다치고 여봐라하고서 참 남여를 타고서
 이렇하고 내려오는디 이게 의젓않은 늙은이가 아랫목에 앉았던 말이여. 그러니께 주인 안노인네가 오
 드니 “아이구 노인, 예, 아이구 여기 시냇마저 내려가느라구(녹음불량) 여기다 사채를 정하라니 워떡
 해유, 저 옷목으로 내려앉고 아랫목은 비워 노시유.” “그래지유.” 그러고서 아랫목에가 내주고서 옷목
 에 가 앉았는 거, 저녁을 떡 먹고 났는디, 참 시내마저 내려가는 원이 가만히 보니까 도포는 입고 평
 민은 아니여, 그러디 늙은 게 못생겼거든, “자네 장개 둘 줄아나?” 대번 자네라 그려 늙은이 보고 젊
 은놈 그래. “예 그저 다소는 알죠.” “그럼 장개 한번 둘라나?” “예 그래지유.” “애들아, 가 장기판 구
 해오너라.” 심심한데 할수 있는 게 늙은이 데리고 놀라구, 앉져서 원이 장기판을 은어 왔단 말이야,
 “장기를 두되, 그냥 두기가 아니야. 내기장기여.” “무슨 내기를 해유?” “장기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
 람 장손가락이라 코를 그냥 탁 텅기게 제 심있는 데로 그렇게 벌을 주기여.” “그러면 그렇 하지유.”
 장기를 두는디 맹정승이 그냥 어떻게 디다 췌단말여. 지니께 코 텅기야지 코 내밀라구, 이렇게 내밀구
 있으니까 으쨍게 대개 넓다 치는지 눈물이 쑥 나왔단 말여. “한번 더 두야지 그리야 비기구 또 이기
 든지 한번은 더 두야지.” “예 그러지유.” 또 두었던 말이여, 두는디 맹정승은 뭐 이미 긴테로 하는디
 두어번 뚜뚜뚜뚜해서 애태기 수루다 대번 장군 짝 노니까 어디루 갈데가 없어. “장군” 그러니께 “하
 하 참나, 거 내 코를 텅기라구. 그러디 내 애길 잘못했구먼, 코를 텅길 적에 배실한 것을 외며 텅기
 여.” 그러니께 거 참 원이 배실한 것을 할 적에 천리 초급 배실에 이발남으루 그러더니 뭘 또 한가지
 해먹더니 참 자기가 무슨 그 원이라구,이렇게 하거던. 그러면서 넓다 텅기는디 눈물이 쑥 나와. 그러
 니까 맹정승이 이겨가지구서 코 텅기라구 코 텅기야지, 하구선 손을 내밀구 코 내밀 밀으 밀으라니께
 코를 이렇게 내밀구는 텅길라구 이렇게 하구 있으니까, 있으며 하는 소리가 정승으로 정승이여, 침에
 아무것도 안해먹었어. 대번 초급 배실에 이발남이니 진사니 하는디, 정승으로 하니께 코를 텅길라고
 보니까, 읊어. 발써 장군 앞에 발써 꿇고 있어. 정승이라는데 뭐 따질꺼 있어, 그래 그렇 할꺼 읊다
 구, 가라구. 그래 맹정승이 그런걸 두번을 격었어. 또 한번은 또 으디로 갔는디, 아, 또 그런 집에 가
 서 오두막집에 가서 사채를 정하구 있으니까 아 또 어서 시냇마저 내려가는 참, 원이 내려가다 말구
 사채를 거기다 정하는디 또 옷목으로 올려보네. 게 혈수 없어. 못생기고, 그냥 옷도 다 떨어진 게, 낡
 은 도포 입고 뭐 꾸주주하니께, 옷목에가 앉았지. 저녁을 먹고 떡 앉졌는디, 그 뭐 말벗이 있으야지.
 아랫목에 하나 옷목에 하나, 늙은이 하나 데리구 앉졌으니. 심심해여 얘기래두 한다허구, 그간청을 하
 는겨. “자네 으서왔나?” 대뜸묻거든. “예 저 온양 서일서 왔시유.” “이름이 뭐여, 참 승이 뭐여?” “맹

씨유. 맹씨.” “맹가면 맹가지 맹씨라구 해?” “예, 저희는 씨라구 합니다.” “이름은 뭐여?” “맹승원이 유.” “우짚놈의 이름이 승도 맹정승하구 똑 같아구, 이름도 어찌 맹정승이 맹승원인디, 우째 정승하구 똑같은 이름이 있어. 애들아, 이거 안 되겠다. 사채 다른 데 가 정해야지. 어이 어이저 거기 사린 것 드리대.” 타구서 도망을 가거든. 그런디 제래다 서울 권안이 들어가서 떡허니 정승으로 앉혔는디, 보 니께 참 그 낭반이 정승이여. ‘그래 애 여기 안되겠다.’ 그라구 다른 데로 떠난 놈. 그놈 배짱이 좋은 놈이여. 그 뵈한가면 잘못했다구 꿍게 아녀! 그래서 그 사람은 그놈 배짱이 좋아서 한 급을 올려 주 구, 또 먼침 그 정승한다구 거드카구 거 땅바닥에 가 빌턴 놈을 가라구 보낸 놈은 그냥 그 자리에 두 었다는 겨. 그건 그것밖에 못해먹어. 그만 하지 뵈. (조사자: 예, 아 너무 재밌었어요. 할아버지.)

나. 둔포면 마을 2 (시포리 1구)

1) 조사일정

1993. 6. 29., 이미진 기록

기대에 못 미친 조사 첫날을 만회하기 위해 숙소를 나서는 마음가짐을 다른 조보다 더 단단히 하고 10시 30분 둔포면 시포리에 위치한 둔포 노인회관을 향해 숙소를 나섰다. 둔포 노인회관에서 윤홍섭 씨가 <온양 온천 이야기>, <이토정보다 아산만이 생긴 장소를 더 정확히 안 용기 장수 > 이야기를 해 주었고, 장순일씨가 <홍수를 예견하여 마을 사람들을 구한 토정>, <맹정승 어머니의 태몽>, <맹정승 을 몰라본 나그네> 이야기를 해 주었다.

12시가 되어 중식을 하고 새말에 있다는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에 가기 위해 2시 30분에 버스를 탔다. 새말로 직접 가는 버스는 아주 드물었으므로 관대리까지만 버스를 타고 도보로 새말에 도착했 다. 3시 30분 쯤에 윤보선 생가에 도착했으나, 관리인이자 친척인 윤희천씨는 부재중이었고, 이곳에 서 소개받은 윤희천씨의 형님 택으로 갔으나 역시 부재중이었다. 그래서 근처 노인회관에 가서 노인 몇 분을 만났으나 모두 모른다고만 하며 말을 하려 하지 않았다. 5시까지 노인회관에서 시도를 하다 소득이 없어 다시 윤희천씨를 만나러 갔으나 결국 만나보지 못하고 6시에 또 다시 첫날과 같이 무거 운 마음으로 숙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2) 마을 개관

【둔포면 마을 2】

337-870 충청남도 아산군 둔포면 시포리

1993. 6. 29., 류지원 조사

둔포면 시포리는 총 124세대 458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남자가 238명, 여자가 220명으로 남녀 의 비율이 거의 같다. 거리에 상점이 많아 점차 도시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마을이다. 전해 내려오는 민속행사는 없다.

3) 구연자

【시포리 구연자 1】

아산군 둔포면 신항리, 윤홍섭(尹興燮), 남, 72

1993. 6. 29., 김명선 조사

직업은 농사일이다. 현지 거주 경력은 8대째 산다고 한다. 외모상의 특징은 목소리가 작고 뭉개지는 것같은 발음이었기 때문에 듣기가 힘들었다. 체구는 마르고 백발이었다. 구연시의 버릇은 손동작을 하였고 침을 자주 삼켰고 존댓말을 가끔 썼다. 의식상의 특징은 일체에 대해 아주 민감하였다. 일본을 아주 미워하였다.

이야기는 <온양 온천의 유래>와 <이토정과 용기장수>를 해주었다.

【시포리 구연자 2】

경기도 평택군 평성읍 석근리, 장순일(張淳一), 남, 77

1993. 6. 29., 김명선 조사

직업은 농업이고 현지 거주 경력은 평생을 살았다고 한다. 외모상의 특징은 약간 구부러진 허리와 투박한 손이다. 나이에 비해 발음이 정확하다. 의식상의 특징은 남이 끼어들면 자신감을 잃어 버린다. 청중들이 말하는 도중에 자주 끼어들어 약간 산만하였고 의견이 구연자와 다른 것도 있었다. 들려준 이야기는 <홍수를 예견해서 마을 사람을 구한 토정>과 <맹정승 어머니의 태몽>하고 <맹정승을 몰라본 나그네>였다.

4) 설화자료

【시포리 설화 1】

둔포면 시포리 노인회관, 1993. 6. 29., 류지원, 이미진, 김명선 조사

윤홍섭(남, 72)

온양 온천의 유래, 이토정과 용기장수

(조사자: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래도 여기서 하신 얘기랑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할아버님 얘기로 듣고 싶어요.) 임금님이 거기 왔던가 그래. 저 학이 학이 다쳐가지고서 병신이 되어 가지고선 거길 날라가서 앉아가지고 그 물에서 나아갔다는 얘기에. (조사자: 온천에서요?) 그래가지고서 그 온천을 개발했다는 그 얘기, 그런 얘기는 들었어도 자세한건 몰루구 얘기를 들으려면 자세 한걸 알아야지 얘길 하지.

모든 걸 잘 알아두 그래 가지구 토정비결을 뭐 이런걸 다 내놨어두 아산만이 거기가 저 육지였을 때거든. 육지였었는데, 거기가 터져나가는 것까지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때 터져나가는 것을 몰랐다 이거야. 사실이 인저 그게 고 비가 그래, 한같이 쏟아지는데 어떤 그야말로 어떤 한 노인네가

와서 토정 선생이 묵고 있는데 여관에서 문을 이렇게 숙 내려보고선 문을 탁 닫더니 “에이, 여기가 알만한 사람이 없구먼.” 그렇거든. 그래서 이 토정이라는 양반이 아차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쫓아 나간 거야. 그런 얘기는 내가 들었어. 쫓아나가서 그걸 쫓아나갔는데 쫓아갈 힘이 없더라. 그래서 쫓아가는데 그 인저 터져 그 터져나간 바둑판 위에 앉으면서 앉고 “에이, 좀 쉬어가야지.” 그랬대. 그 인저 토정이라는 이는 그 뒤를 쫓아가다가 하두 어려워서 “아이구 어려워라.” 좀더 올라 앉으우라고 잡아당겼다는 말. 그래 고기가 푹 잘려 내려간 거야. 그래서 아산만이 생겼다는 거야. 뭐 그런 것도 있어, 그 저기가 무슨 저기 노인이 아니라 이, 저기저 옹기장사 (조사자: 옹기장사요?) 옹기집 지구서 그랬다는 그런 얘기두 있구. 자세한 건 몰러.

【시포리 설화 2】

둔포면 시포리 노인회관, 1993. 6. 29., 류지원, 이미진, 김명선 조사

장순일 (남, 77)

홍수를 예견하여 마을 사람들을 구한 이토정, 맹정승 어머니의 태몽, 맹정승을 몰라본 나그네

여기 와서 인저 정착할 때 많은 그 인구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여, 남의 집 고용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구. 고용을 하면서 고용을 하는데 그 그저 맑은 날씨인데도 내일 우리 모 좀 심어 달라고 말이여. 그러니까 그 지방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미친 사람이지 성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그냥 밤새 이러다 웬간에 소낙비가 쏟아져 가지고 말여. 물이 흥청하게 고일 정도로, 그러니 일을 맡았으니까 일을 안 할 수 없구 그거서 일을 모를 다 심어주고 수년을 내내 이렇게 지나면서두 지내는데 아주 토정선생이 말씀하시는 것이 토정인지 몰랐지. 남의 집 고용하는 사람이니까 남의 집 머슴살이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이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전부 맞아 들어 간단 말여. 모든 일이 그냥. 그래가지고서 한번은 인저 정말로 천지개벽이 그때는 천지개벽이라고 했지. 개벽, 개벽을 한다 그러니깐 이 많은 인구들이 이 이 그산 그러니까 인저 그거 무슨 산이지? 그 산이? 그게 무슨 산이지요? 왜? 여기 그 높은 산 아니 아니 고 앞산. 고량산. 고량산 꼭대기에 올라가야만이 살수 있으니까 고량산으로 다 다들 그냥 모이사라구 이말이여. 천지개벽을 하니깐 그러니까 그거 말 같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계속 그냥 해나온 말이 맞아 들어가니까 말여 응. 그리고 그 사람 말에 응해보자 말야. 그 산위로 오른 사람은 오른 사람은 오르고 어이구 그까짓 남의 집 머슴살이 무얼 아느냐 그말이여. 그러구 그냥 무시한 사람은 다 떠내려가 죽구 또 그 사람 말을 응한 사람들은 그 고량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구선 그냥 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거여. 그런 전설이 있다가. (조사자:근데 그 저기 토정 이재암이요, 양반이 아나었나보죠?) 양반이고, 양반이고 그거는 그거는 모르지. 양반인지 안 양반인지는 모르지만 그 만큼 알기는 토정선생이 그 만큼은 알으셨다는 얘기지. (조사자:근데 그 이쪽이요. 여기가 경기도 평택하고 가깝잖아요. 평택이나 안성이나 이런 데랑 가깝잖아요. 근데 이쪽의 땅이 아주 그니까 항상 물이 있어서 농사를 쳐두 잘 된다고 그런 얘기를 토정 이지함 선생이 했다던데.) 글썄, 토정 말씀대로 조금도 틀림없이 (조사자: 근데 예전에요, 여기 저쪽에 나갔었는데요. 그쪽에서 이쪽에 이제 그 둔포하고 가까운 데였거든요. 평택하고도 가까운 데였어요. 그쪽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니까 항상 비가 많이 와두 그쪽 둔포나 이쪽지역은 홍수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여기가 인저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중부지방이 홍수가 그렇게 이저 남도나 뭐 호남지방이나 경남지방이나 경상남북도 지방보다는 응 홍수가 그리 심한 편은 아니지 (녹음불량)

(조사자: 아시는 얘기 해주세요. 맹정승 얘기 들으신 얘기 있으시면요.) 맹정승 얘기가 인저 맹정승이 어머니가 말여 그 맹정승의 어머니가 그 꿈을 꾸니까 말이지 꿈을 꾸니까 설화산을 혼자 꿈에 설화산을 다 집어 삼켰다는 얘기에. 그래가지고서 그해에 그때인저 태몽이란 말이지. 그래가지구 맹정승을 낳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설화산을 꿈에 설화산을 다 집어 삼켰는데 그 고때 태몽꿈이나 고때 맹정승이 인저 잉태해가지고 맹정승을 낳아가지구선 정승으로 만들었다는.

(조사자: 맹정승이 못 생겼었다는데, 그러던데.) 지금 개천 큰 개천이 있는데 맹정승이 낚시를 좋아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맹정승이 낚시를 가져와서 낚시질을 하고있는데 저 아래 삼강대로변이 말여 고기서 과거보러가는 과객이 지나가면서 영감님 “나 월천쫘 해주슈.” 그러니까 말이지, “아 헤드리지요.” 그랬거든. 저 그 내 개천을 절반이나 옆구선 건너갔는데 맹정승이 거기에 사신다는 것은 다 그래도 다들 인정하고 알구 있었는데 그 여기 맹정승은 뭘로 소일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맹정승은 뭐 이러긴 낚시질이나 하고 여기 앉아서 지나가는 분들 월천이나 하그 있다고 하니까 아 그거 기가 맥헐꺼 아녀. 과거 보러가는 사람이 맹정승의 등어리에 얹혀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이거 몰라 뵈었습니다. 아주 하하.

다. 둔포면 마을 3 (시포리 2구)

1) 조사일정

1993. 6.29., 이상은 기록

조사 첫째 날 둔포2리 노인회관에서 약속했던 리흥남씨의 나머지 이야기를 듣고자 그 곳에 다시 갔는데, 리흥남씨는 없고 다른 노인들은 냉담한 태도로 가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아무런 소득 없이 노인회관을 나선 우리 조사자들은 둔포리에서 가장 가까운 시포리의 노인회관을 가보기로 했다.

시포리 경로당에는 열댓 명 정도의 노인들이 있었는데, 이기영씨가 힘든 논일을 할 때 힘을 북돋기 위해 부르는 노래를 해주었고 주영준씨는 <대장장이의 효성에 감동한 임금님>, <임금님이 붉은 기, 흰 기로 신하들이 부인을 잘 다스리는 지 알아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 김학원씨로부터 <일곱 아들과 견우 직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시포리에서 조사를 마치고 2시경에 점심식사를 한 후 남창리의 노인회관으로 향했다. 그 곳은 원래 둔포리 다음으로 많은 노인들이 있는 곳이라고 알고 갔는데 마침 동네 어른 한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노인회관에는 아무도 없었고 길에서 만난 동네 사람들조차 너무도 비협조적이어서, 또 한번 큰 실망에 빠져 있었지만 조사자들은 마지막으로 한 마을만 더 가보기로 했다.

무작정 차를 타고 가다가 내린 곳은 둔포면을 벗어난 영인면의 창룡리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주신 최경희씨로부터 <당개마을의 언덕 이야기>, <토정의 수제자인 소금장수 박씨가 역학자 김동주의 예지력을 능가한 이야기>, <고룡산에 묻은 토정의 보물단지>, <맹정승이 자신을 알아 보지는 못했지만 배짱있는 농민에게 오히려 상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대로 조사를 마치기에는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더 이상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6시에 숙소로 돌아왔다.

2) 마을 개관

【둔포면 마을 3】

337-870 충청남도 아산군 둔포면 시포리 2구

1993. 6. 29., 정지윤 조사

시포리는 70여 가구의 마을로 그다지 넓지는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은 농사를 지으며 살고 마을은 무척 조용하고 한적한 느낌을 주었다. 마을의 유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었고 이 마을에서 오래 산 사람도 그다지 많지는 않았다.

3) 구연자

【시포리 구연자1】

둔포면 시포리 1번지 4호, 이기영, 남, 63

1993. 6. 29., 정지윤 조사

대대로 이곳에서 지냈다고 하며, 학력은 중학교 중퇴이고 직업은 역시 농사이다. 오른쪽 팔이 팔꿈치 위로는 무척 짧아 보통의 반 정도이다. 체격이 좋은 편이며 약간 뚱뚱하다. 얼굴은 검은 편이나 붉은 기가 더 많아 보인다. 구연 중에는 손짓을 많이 하고 특히 바닥을 자주 친다. 말끝마다 여유있게 웃음을 잘 짓는다. 무척 개방적이고 신식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다. 청중들의 반응은 많은 편찬을 주거나 거들어 줌으로써 관심을 보였다. 구연자료에는 <김메기 노래>가 있으며, 일을 하는 어른들에게 들었다고 한다.

【시포리 구연자 2】

둔포면 시포리, 주영준(朱靈俊), 남, 77

1993. 6. 29., 정지윤 조사

농사분야에 종사한다. 앞 아랫니가 없고, 마른 편이며 머리는 벗겨지고 흰머리에 금테 안경을 쓰고 있다. 말할 때는 발을 흔들고 가끔 침을 뱉는다. 항상 양반다리를 하고 무척 점잖게 앉으며 말하는 투는 훈계하듯이 한다. 부모공경을 하라는 말을 무척 강조하며 며느리와 용돈에 대한 말을 하기도 했다. 정치에 관심과 불만이 많아 보인다.

구연자료에는 <대장장이의 효성에 감동한 임금님>, <임금님이 붉은기 흰기로 신하들의 부인을 잘 다스리는지 알아본 이야기>로, 집안 어른들께 들었다고 한다.

【시포리 구연자 3】

둔포면 시포리, 김학원(金學元), 남, 90

1993. 6. 29., 정지윤 조사

무척 정정한 모습이다. 농사를 지으며 60여 년째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마른 체구에 돋보기를 쓰고 귀가 어두웠으며 술이 적은 백발이다. 다리를 쭉 펴고 기대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의 거의가 다른 이야기들을 거드는 거였다. 다른 할아버지가 한 정치 이야기에 특히 맞장구를 치는 것으로 보아 정치에 대한 불만이 있고 효에 대해선 무척 강조를 하였다.

구연자료에는 <일곱 아들과 견우 직녀 이야기>가 있다.

【시포리 구연자 4】

영인면 창용리, 최경희(崔敬喜), 남, 74

1993. 6. 29., 정지윤 조사

농사를 지으며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하고 중학교를 다녔다. 6.25이후 40여 년째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키가 작고 마른 편이며 약간의 백발이 섞인 곱슬머리이다. 얼굴은 주름이 많고 두 볼이 약간 패였으며 눈이 들어갔다. 검은 피부에 앞니는 거의 은니였는데 앞니 하나가 빠져 있었다. 한손으로 몸을 받치고 비스듬히 앉아서 다른 한손으로는 손짓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면서 이야기 중에 바지 자락을 만지작거렸다. 7남매를 두었는데 그중 딸이 6명이라 말하면서 딸도 아들 못지 않게 중하다 말하였다.

구연자료에는 <당개마을의 언덕 이야기>, <토정의 수제자인 소금장수 박씨가 역학자 김동주의 예지력을 능가한 이야기>, <고룡산에 묻은 토정의 보물단지>, <맹정승이 자신을 알아 보지는 못했지만 배짱있는 농민에게 오히려 상을 주었다는 이야기> 들인데 어른들 특히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께 들은 이야기들이라 하였다.

4) 설화자료

【시포리 설화 1】

둔포면 시포리, 1993. 6. 29., 이상은, 정지윤 조사

이기영(남, 63)

김 땀때 부른 노래.

우허,우허 올라를 가으세---

어우하 올라를 가이세---

낙사선에 하남지고- 울출 동녘에 달이 솟네---

어우하 올라를 가으세---

【시포리 설화 2】

둔포면 시포리, 1993. 6. 29., 이상은, 정지윤 조사

주영준 (남, 77)

대장장이의 효성에 감동한 임금님, 임금님이 붉은 기 흰 기로 신하들의 부인을 잘 다스리는지 알
아본 이야기

임금님이 새벽에 암행으사로다 나갔어. 응, 게 나가고보니께, 대장장이가 풍지랩에 연장을 드리거던
(청중: 뭘 연장) 응? 하하하- 대장장이 보고 묻는 말이 새벽보텀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벌우. 네, 불
어서 먹고 남은 거 빗갠구 갠구 남은 거 또 놓기도 합니다. 거 임금님이 저 무슨 소린지 뭘러. 대장장
이는 그야말로 임금인지도 모르고. 나 나서 진자리 마른자리 응 치워주구, 가르쳐주구, 맥여주구, 한
공을 갠구, 또 남으면은 자기 자식을 가르키구, 응 맥이기도 한다 그거여. 거 참- 기맥힌 소리 거던.
그래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불러서 상을 준거야. (조사자: 예, 그 대장장이를 요.) 응.

신할 불렀어. 백 명을 불러다 놓고 혼든기 흰 기를 저기다 놓고 붉은 기를 저기다 꽃아 놓고서 이
쳐 말 잘 듣는 사람은 붉은 기루 가구, 또 안 듣는 사람은 혼기로 가거라. 빨리 가라. 그러니까 아흔
아홉 명은 붉은 기루 가고, 한 놈이 혼기로 가거던. 게 저놈은 지 처말 앓듣는 놈인가 보다, 그러고서
불러서는 너 으째 혼기로 갔드냐. 네, 저의 처 가 여러가는 길은 가지 말래서 혼기로. 거 저의 처 말
더 잘 듣는 놈이 거든, 그놈이. 아흔 아홉은 붉은 기로 뛰어 내뺐는디, 한놈만 글로 가야. 더 잘 듣는
놈이란 말여. 게 이 속담에 여자들이 남편하나를 색일라고하고, 아부하고, 기집들이 더 잘나봐. 하는
것이 여자들 손, 집안에 가만 앉아서 말대라구, 좀 뭇좀 요구하거든. 남편이 안 들어 주구.

【시포리 설화 3】

둔포면 시포리, 1993. 6. 29., 이상은 정지윤 조사

김학원(남, 90)

일곱 아들과 견우 직녀.

(조사자: 견우가 누구라구요?) 응? (조사자: 견우하고 직녀가 있었는데.) 응. 견우 직녀라고 그러잖
어? 응? (조사자: 예.) 견우 직녀라구. 견우는 남자여. 직녀는 여자구. 게 그 직녀가 아들 일곱을 두고
후가해갔어. 왜 갔어, 왜 갔겼어. 거 일곱을 아들을 두고 (조사자: 바람나가지구) 바람이 나서 간 게
아니구, 아들이들 일곱을 뒀어도 신을게 없어. 이거, 발에 다 끌께. 옛날에 짚신을 신고 땡겼는데, 그
래 이 견우가 견우가 (조사자: 예.) 견우가 견우한테로 시집을 갔어. 짚세기나 실컷 은어신고 살다 죽
는 다구 아들 일곱을 두고 (조사자: 응, 원래 견우한테 시집갈 때가 그럼 후가 었어요?) 예. (조사자:
예.) 그러께, 그런 건지도 있었는데 (청중: 아들이들이 얼마나 잘했으면 그렇겠어.) 응. 지끔은 젊은 사
람들 대책고 같은 데 뭐 뭐 했다니까 얘기를 하는데, 부모를 알아 동기간을 알 (청중: 아무 것도 몰
러.) 세상은 그렇지, 그렇게 되었지. (조사자: 근데 원래 견우 직녀가 하늘나라 하늘에서요 살았는데,
둘다 좋, 너무 좋아해가지구 쫓겨난 게 아니예요. 그거 아니예요. 예, 원래 이승사람이였었어요.)그래
서 왜 칠석날 일곱 칠성일이라 그러잖아. (조사자:예)그게 직녀의 아들이여, 일곱 아들 이름이 (조사
자: 아, 아들 일들이 일곱이 엄마가 저 시집갔으니까 슬퍼갔고 우는 거예요?) 그래 (조사자: 예.) 저
짚순 할아범한테로 시집을 갔어. (조사자: 예? 누구한테?) 짚신 할아범인 (조사자: 아~, 짚신.) 이 견
우가 짚순 할아범, 짚신만 삼아 팔았어. 견우가 그래서 그 직녀가 할멈이, 그 영감한테로 시집을 간
게, 짚세기가 실컷 얻어 신겠다고. 아들 일곱놈 이 짚시, 짚신 한 짝을 안 삼아 줘. 그래설람에 하도
답답하니까 간거지 (조사자: 그러면 그 일곱 아들은 견우의 아들이 아니라, 딴, 딴 아들인 거예요?)

응? (청중: 자기 아들이지.) 견우 아들이 아니지. 직녀의 아들이여. 직, 저 아들 일곱이 직녀의 아들. 견우는 아무 것도 없고 혼자 짚신만 삼아. (조사자: 전남편의 아들이지. 예, 아~.) 저 하도 서러워서 들 저렇게 우나 보다구. 그래서 그 눈물 흘린 것이 칠석날 되면 눈물 흘린다는 게야. 그래서 그 왜 까치, 까치 얘기를 하잖아. 까치가 그 칠석날이면, 이 머리가 훗칠훗칠허거든, 허얏게.그 견우 직녀 만나느라, 만나게 하느라구. 저기서 여길 올라온 건너 울수가 없으니까 다릴 놔 주는 기여, 까치가. (조사자: 아 견우랑 직녀랑 헤어져 있었던 거예요.) 예. (조사자: 결혼 했잖아요. 그럼 다시.) 응, 그렇지 그러서 각각 있으니까 여기 인저 만나야 할꺼 아녀. 그래서 다, 다른날 만난 게 아니구 (조사자: 근데, 왜 헤어 졌는데요.)칠석 날이면 만나. 칠성날 칠월 칠성. 음, 음력 칠월 칠성. (조사자: 왜 헤어졌는데요?) 예는 그러서 직녀가 견우를 만날라구 가야 할텐데 (녹음불량) 그래 그 까치가 다릴 놔 주는겨, 건너가게.

【시포리 설화 4】

둔포면 시포리, 1993. 6. 29., 이상은 정지윤 조사

최경희 (남, 74)

당개마을의 언덕 이야기, 토정의 수제자인 소금장수 박씨가 역학자 김동주의 예지력을 능가한 이야기, 고룡산에 묻은 토정의 보물단지, 맹정승이 자신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배짱있는 농민에게 오히려 상을 주었다는 이야기.

(녹음불량) (조사자: 당개요?)응, 요 너머 산너머, 이전에 당이 있었거든. 그것이, 그게, 옛날에 그 여자, 여자의 음 그거 전해오는 얘인데. 뭐 늘 그전에는 물이 여까전 개펄이, 뺨이였었거든. 물이 조수가 드나들었었거든. 그럴 당시에 인제, 그 뭐 항상 듣는 얘기가 인제 그거지 뭐. 전설의 고향같이. 인제 배를 대고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덜 기다리는 봉우리가 있었거든. 그 그게 당을 지어 놓고서는 그걸 승배해여. 그래 여기 뱃, 저 그 뱃사공들이 배를 띄울 때는, 항상 거기다 고사지내. 그러고서 나가야 돌아오는 길이 편하게 인제 된다고 (녹음불량) 지금도 여기 낙조호에야 배 저 배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여가 배가 많았었어요. 배가 많아 어민들도 있고. 그거를 (녹음불량) 언젠가 한번 여기 많이 불행이 돌아 왔었거든요. (조사자: 불행이요.) 예, 그게 배 나갔다가, 놀러 나갔다가, 봄에. 막 이월 봄농사가 중순쯤 뒀을 텐데, 이 배를 타고 그때는 그저 뭐 저 하러 나간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그, 그걸 타고선, 그 행당성이라고 아산만 나가 그 바깥으로 나가서 인제 그 조개, 그 대합이라는 것을 잡으러 나갔는데, 으떻게해서 어긋나 가지고선 바람이 세어 가지고서 그냥 거의 한 십여 명이 탄 이상, 그냥 전복이 되어 전부 그냥 납도로 그냥 편입되었어. 그때 그때 이래로 그때한 칠 팔십 된 노인들 다 다, (녹음불량) 사람들이여, 그 (녹음불량) 접때 나와 가지구서, 근데 그걸 가지구선 거기 공사가 잘못됐다구. 근데 저걸 막고 보니까는, 이제 배가 필요 없게 뒀어. 그래 현재는 그걸 없었어요. 그 요전에 음- 지금도 줄 이십, 한동안 떠들었었어, 사춘기 때. 아무 것도 없거든 지금. 다만 얘기라고는 그거밖에 없어, 여기.

토정선생의 얘기거든, 이게. 토정선생의 얘기. 얘기로 듣기론 한 사 오 백년전 일이라고 하는데 (녹음불량) 그전엔 요기가 맥혀서 산이 저 지금 아산만 마을인 그 그게 안동이지, 안동서 당진까장 이게 산, 산이 맥혔었거든요. 이게 거긴 길이 나있는데 맥혔었는데, 그 그것이 그때 당시에 무, 뭘지 잊어

먹었구만. 진단같이 진, 전해내려오는 임금의 (녹음불량) 훨씬 가까워졌어, 산을 돌아나와서. 그때 당
 시 저가 마을이 있었거든. 요 요너머 인제 요기. 제수덕 위로 호수가 마을이었으니까. 그래 지금 넘어
 가면 (녹음불량) 자리가 있어, 요 너머로. 인제 논이고 뭐 인제 요기 개발을 해서 없어. 구만 집토 자
 리도 있고, 그래, 그 때뉘 역학에 이제 그 뭐 상대적으로 나타나 가지구서 김동수라는 사람이 아마
 이 근방에서는 역학에 아마 통했었던 모양이야. 그런데 그 김씨라는 사람이 이 그때가 아마 산을 (녹
 음불량) 물이 한참 한참 들어 올 때 거든. 그때가 (녹음불량) 마을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통. 움
 직이질 않아. 그니까 이 김동수라는 사람이, 동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 거기가 금방 뚫어져 나
 가서 물이 들이밀어서 그냥 쑥 빠져 나갈 것 같은데, 동네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지 뭐야, 이거. 알고
 서도 뭐 그 어떻게 피난을 시킬 수가 없어, 이게 사람들을. 그래 이제 그 이제 그 토정선생을 썬겼다
 는 제자가, 수제자가 나가보니까는 그 사람은 또, 시간까지 알아요. 인제 그 사람, 인제 그 밤 열두
 시하고 한 시하고 그 사이에 물이 들어와서 터질 건데, 이 그냥 와서 있으나 없으니까는 (녹음불량)
 이 사람이 장사여, 천하장사. 또 이 사람은 박씨데, 이 (녹음불량) 천하장사데, 배럴 짚어지고 이 부
 락으로 들어왔어. 그냥 배럴. 한, 한 이 삼십명 탈 수 있는 배럴 지고와서 돌아 대니니까, 연방 그 동
 네 사람들이 제다 미친놈 취급하는 거야. 이 육지에 뭐 배가 필요하냐구. 산으로 가다 지고 땀기면서,
 배럴 타라는 거야, 자꾸 배럴. 이 그거 누가 믿고 배럴 타겠어. 그걸 모르니까, 물들어 올걸 모르니
 까. 그냥 (녹음불량) 이 박씨라는 사람은 이제 그 저 그저 박씨라는 사람이 이제 좋다고 하기, 들어와
 설람은 (녹음불량) 옛날에 민속촌에 가면 지게가 이상하게 빠죽하게 생겨서 등에, 뒤로 짊어 쪼그매
 가지고 새우젓, 그 그런거 쪼그매 거 있었잖아. 그런, 그런 데가 대번 (녹음불량) 가운데 갖다 그걸
 벽쳐 놓고서는 거기까장 (녹음불량) 무너진다는 걸, 그 이제 자시하구 우시하구 인제 인제 이 머리 좋
 은 사람은 낮 열두 시에 터질 것을 짐작했는데, 이 박씨라는 사람은 인제 새로 오전이지, 오전 한시에
 터질걸 이 사람은 (녹음불량) 그래 이 사람이 뭔가라서 그 우시, 낮 열두 시에 터진, 터질 것을 이거
 이제는 알려 가지구 거기다가 인제 배 인제 (녹음불량) 지게, 지게고 그걸 고기에다 산, 그때는 산이
 통했으니까. 산 가운데다가 뺄쳐 놓고선, 작대기 뺄쳐놓고 이제 이 사람은 고기까장부팀 고 이안은
 팬찰을걸 미리 알았던 모양이야. 그래 인제 그 시간이 흐르니까, 그냥 이게, 그냥 막 해일이여. 그 물
 그냥 해일 소리가 나와. 그냥 다 그냥 바닷물이 넘쳐흘러 들어와. 그 시간에 그냥 물이 들이밀었으면
 마을 사람들이 아마 삼분의 이가량이 텅겨나가고, 아마 그냥 큰 사고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게 터
 졌더라면. 고기까장, 얘기는 고기까지. (조사자: 응, 얘기가 그럼 해일, 막 이렇게 사람이 죽을 정도로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였어요.) 응, 많이 들어 와서 여기 휩쓸어 빠져나가서 이제 와서 그
 때는 여기가 갯벌이여. (조사자: 근데 그 박씨라는 사람이 소금장수란 얘기가…….) 예, 소금장사. (조
 사자: 소금장사예요.) 그 사람이 소금 집에다 배를 지고 왔던 게야. 근데 그거 안 탔잖아, 사람들이.
 (조사자: 그럼, 김동수란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역학자로써 그냥 여기 지방직에서 (조사자: 그
 럽, 토정 이지함하고는…….) 인제 그 박씨란 사람이 토정의 제자. 수제자. (조사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 그 소금장사가 토정의 수제자였다는 말씀이시죠?) 그래 그래 그런 거지 (조사자: 그리고 수제자가
 역학자인 김 김동석 김…….) 동주 (조사자: 동주요, 김동주보다 나왔다는…….) 한 한 인제 그 사람이
 앞섰다는 거지. 시간을 알았기 때문에, 이 김동주라는 사람은 낮 열두 시에 터진, 열두 시에 터진다
 고. 이 박씨라는 사람은 이름은 모르는데 그 전날 밤 열두 시에. 이 고차이야. 열두 시, 열두 시 (조
 사자: 열두 시간이나 차가 있었…….) 그래, 응 차가 있어, 그래. 그걸 구했단 말이여, 와서 그렇게. 사
 람들을 한참, 이 다른 사람들을 피난시킬려면 한꺼번에 할 수 있어?

토정, 현, 이 사람이, 여 고령산이라는데, 너무 그 책에 더러 나오고, 보물 향아리가. 여기 고통산

이라는 데가 있어. (조사자: 고통산이요?) 응, 고통산에 거기다가 인제 그 옛날, 옛날에는 우리 (녹음 불량) 은하고 금하고 향아리에다가 세 향아리씩, 물어 냈는데, 그거를 그사람이 물어 놓고 누구한테 전하질 않아 가지구, 그게 아마 니궁²⁾에 빠진 모양이지. 그래서 누구든지 끝내 찾질 못했던는가 봐. (조사자: 거기 얽힌 얘기가 있어요?) 응,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토정 선생이 어느, 저기 고을에 살을 적에 원이지, 지금 지방 판결 (녹음불량) 그 낭반이 식사를 하실 적에 뭘 하나면 항상 백숙 닭, 닭을 인제 그 아마 백숙해서 먹고 (녹음불량) 거기 인제 지네를 너 가지구 (조사자: 백숙이요?) 응. 그걸 먹고 식사하신 다음에는 꼭 밤을 세 개씩 먹어야 된대요. 좌우간 생밤, 밤을 깎아서 인제 그 사람이란 게 지방 책임자로 나가서 책임이 막중해. 인제 그 거기에 반대파가 이 사람은 깨끗하게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녹음불량) 저때때니까 말을 못하게 해놨거든, (녹음불량) 인제 그 하얗거든. 깎아 놓으면 밤하고 똑같애. 밤 대신 말을 못하고 (녹음불량) (조사자: 그러니까 그 지네를 생으로 먹은 게 아니고, 백숙에다가 넣어서 익혀 먹은 거예요?) 응, 먹는데 먹고나서 그 제독을 하려면 밤을 먹어야 된대거든. 응, 이제 그 밤을 진짜, 밤 세 걸 먹어야 되는데 (조사자: 밤 세 개를 먹어야 된다고요?) 응, 세 개. 그걸 못 먹게해서 그게 이 갔다구. 이 인제 억울하다는 걸 이씨들은. (조사자: 이씨들은 지금도 억울해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럼, 그라구 그걸 못 찾으니까.

암자를 찾아 대니는데, 어느 그 용굴에서 여름이였어. 들에서 일하고 있었어. 지금 농약 그때는 각 부락 그네들이 인제 나와서, 쉬러 나와서 농약을 하는데, 거기다가 소를 타고 그냥 지나 간거야. 늙은이가 지나가니까, 그네들이 아마 시비를 걸었던 모양이지.어서 돼먹지 않게 끼어 드느냐. 인제 소 타 갔고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 간다구. 근데 거 아마 소를 탔어도 아마 그 경마쟁이, 소 고삐 트는 사람을 데리고 땡겼었어, 하나하나 그 사람이 무슨 야글 할라면³⁾, 인제 맹사성이 이 낭반이 아 그 절대 입을 틀어 막어. 인제 그 들어 난다구. 거기서 시비가 나가지구서는, 끌어 내려서 더러 그 짓곳은 사람들 있잖아, 더러 거기다 갔다가 옆, 옆드려 놓고서는 거기서 등에다 타고선 가라는 거야. 인제 막, 인제 이 사람이 그 정돈 그때 시절에 인제 인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참을래니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냥 속이 그냥, 북받쳐 가지구서, 그 옆뎡이 그놈을 그냥 화가 나서 그냥, 하도 북받치니까, 주먹으로 그놈을 어떻게 돌이랑 부서지질 않아, 그냥. 그냥 그러니까, 거기 있던 농부들이 그냥 전부 혼비백산해 갖고 제 도망가는 거야 제. 제 도망을 갔는데, 그 다음에 그 물에 내려와서, 그땐 아마 그 낭반이 제 정신으로 갔던 모양이야. 그 자리로 가서 그네들을 제 불러 가지구선, 니네들이 한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야. 용, 용기가 좋단 말여, 용기.

라. 둔포면 마을 4 (염작리)

1) 조사 일정

1993. 6. 29., 권민정 기록

조사 둘째 날인 29일은 어제에 이어 비가 계속 내려, 덩지 않은 가운데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사전 조사도 없던 둔포면 염작리를 가기 위해 아침 10시 20분에 숙소에서 출발했다. 비도 오고 교통도 좋지 않아 12시가 되어서야 염작리 노인회관에 도착할 수 있었다. 들어가니 노인 세 분이 있었는데 김영호씨가 큰 호의를 보이며 <해주 정씨 유래>, <이순신 훈령에게 혼난 마부>, <아산군 유래>, <새우

첫 장수에게 진 토정>, <동염못의 도깨비불> 를 구연 했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애를 먹긴 했지만 성찬용씨로부터 <월정사의 유래>, <수정사의 유래>, <박문수와 행색이 같은 사람덕에 좋은 일한 박문수>, <이성계와 통두란과 주원장>을 들었다. 더 듣고자했으나 마을에 노인들이 보이지 않고 사전조사도 없던 곳이라 3시에 김영호씨의 전송을 받으며 나와 중식을 한 뒤 숙소로 돌아왔다.

2) 마을 개관

【둔포면 마을 4】

337-870 충청남도 아산군 둔포면 염작리

1993. 6. 29., 황재영 조사

둔포면 염작리는 마을로 들어서는 길에 있는 과수원이 운치를 더하고, 나무가 특히 많아 전원적인 풍경이 보기 좋은 마을이다. 약 1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집집마다 소들이 있고, 주민들은 주로 농업과 과수업에 종사한다. 마을에 국민학교가 하나 있다.

3) 구연자

【염작리 구연자1】

둔포면 염작리, 김영호(金榮虎) 남, 80

1993, 6, 29., 소진희 조사

외모상의 특징이라면, 약간 대머리이고 머리는 하얗다. 얼굴에는 검은 검버섯이 뿔다. 구연 시 독특한 버릇이라면, 말하면서 주먹을 뿔다 쥐었다 하고, 말 첫머리에 “나는 잘 모르겠는데”라는 말을 자주 넣는다. 의식상의 특징이라든가 청중들의 반응은 자신들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다고 하여 말하기를 꺼려하였고, 청중들도 조용히 듣기만을 하였다.

【염작리 구연자 2】

둔포면 염작 1리, 성찬용, 남, 78

1993, 6, 29., 소진희 조사

외모상의 특징은 눈꼬리가 처지고, 눈꼬리 밑에 검은 검버섯이 2개 있다. 얼굴은 마르고 길다. 윗입술이 너무 얇아 눈에 잘 띄지 않고 눈밑 양쪽이 부은 듯이 올라와 있다.

구연 시 독특한 버릇은 말이 막히면 코를 쓰다듬는다. 또, 파리채를 잡고 두들기면서 말하였다. 의식상의 특징이라든가, 청중들의 반응은 성찬용 할아버지는 주위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 것도 모른다고 처음에 말하시기를 꺼려하였다. 청중들의 반응은 조용히 들으며 간혹 도움말도 해 주었다.

4) 설화자료

【염작리 설화 1】

염작리 1구 노인회관, 1993, 6, 29., 황재영, 권민정, 소진희, 정지윤 조사

김영호(남, 80)

해주 정씨 유래, 이순신 혼령에게 혼난 마부, 아산군 유래, 새우젓 장수에게 진 토정, 동염못의 도깨비 불,

해주 정씨가 그 성환면에 대서로 살아요. 한 백호, 그네들이 인저, 응 종산, 종산 아시여? 종산이라는 것이 인저 그 뽕을 위해서, 응 돌아가신 분들을 한테다 모아서 공동묘지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 모시는데, 다른 데로 안가고 그 산에다가 다 모시는 거지. 그 세장제라고 해. (조사자: 그럼 어디가 해주 정씨 자연부락이예요?) 아! 여기는 아녀요. 성환면, 신방면, 여기는 거 해주 정씨가 한 집 밖에 안 되요.

거기 또 저 아래에서는 한산도에서 그 일본 사람들하구 임란 때 돌아가셔서 그 낭반이, 뭐 학생들이 더 잘 알겠지만도 거기선 거기가 시체가 있다구 하구, 여기서도 여기가 시체가 있다고 하고. 그런데 (조사자: 어디에 진짜 있는거죠?) 진짜 모르지. 그러니까 그 속담에 이렇게 들어보면, 전설이지. 속담이 아니라. 전설에 들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음 그 낭반이 수전에서 전사하지 않았어? 마부가, 말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말은 죽지 않고, 그는 수전에서 인저 돌아가셨으니까, 빈 말을 끌고 오는데, 말우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놈, 빨리 가자.” 음 그참! 전설이지. 어떤 건지 모르지. 인제 그런 얘기도 들었구.(조사자: 그게 이순신 장군 혼령이죠?) 그렇지! 혼령이지. 음 그런 얘기도 들었구. 더 더 알고자하면, 염티면 백암면이라구, 종손이 거기 살구. 이순신 장군이 종손이 거기 살았어. (조사자: 근데 돌아가셨지요?) 돌아가셨지. (조사자: 지난 겨울에 조사 갔었어요.) 이용렬씨라구.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재덕이라고 하는 사람이있어. 그 사람이 쉬은 대여섯 됐을까야. 그 응렬씨가 참 많이 (녹음불량) 어떻게 돼가자구선, 그 아들 재덕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이가 쉰 대여섯 됐어요. 근데 동통이 생겨서, 그래 인저 결혼도 못하구, 어떻게 참 어느 여성이 자기가 자청을해서, 고칠수도 있는것 같애요. 보며는, 고칠 수도 있는것 같은데, (녹음불량)

예전에는 삼군이여, 신창, 온양, 온양이라서 구온양이였어요. 아산, 그래서 세군이 합쳐서 아산군이 됐는데, 이쪽으로다, 이리 구안군시대에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한국이 조선이 약 360골이라구. 60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하면, 나라에서 하루 하골씩 받아서 정부에서 지원 활동 (녹음불량) 그런데, 그 당시 그 낭반이 영인면 아산, 현재 아산이여. 아산이라구하구, 면으로다 관명으로다 영인면이지.

인저 그런 얘길 한번 들었어요. 그 낭반이 여기 저 바다가 가까워. 응 한번 가보세요. 저쪽으로다가 아산만 삼교천, 아산만큼으로다가 그 낭반이 여기를, 뭐 당신 관할이니께 나가 보셨던 모양이여. 그러니까 어떤 그 새우젓 장사가 말이여, 새우젓 지계를 지고 대는 사람이 새우젓 짐을 지고서는 자계를 그 물 들어오는 위험 수위까지 딱 받쳐놔어. 그러니까 토정이라는 양반이 거기 조금 위험하다고 일루 올려라구. 물 들어와서 그러는 것보담도 이만치 지계를 들어 올려 놓으라구. 침수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새우젓 지계를 지고 온 그 분이 들은 체도 아 하거든, 어 들은 체도 안 쿠션 그냥 딱하니 지계란 것이, 이렇게 인저 지계란 거 아시죠? 작대기란게 있어. 작대길 이렇게 비스람치 꽃앓단 말이여. 지계가 이렇게 스게. 물이 소수가 되서 딱 들어 오니까 만수가 됐는데, 꼭 작대기 뽑을 때 고기까지만 딱 들어왔다. 음 그러니까 이토정 그 낭반보담 그 새우젓 장사가 더 잘 아는 사람이여. 웃

음. 그래서 인저 거기서 뭐 사설같은 걸 노면서, 돌아서서 몇 발짝 안 갔는데,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왔는데 돌아서 보니께 없더라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신령이지. 그러니까 너무 아는데 말아라. 너 토정에도, 그런 취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다구. 그렇지 않잖아? 그리고 거기는 자기는 요기까지 물이 딱 들어와서 요기다 작대기 꼬챙이 딱 박았는데, 통정씨가 보니께, 여 수위가 위험 수위란 말이지. 그러니까 좀더 올려 오너라. 그러니까 근데, 들은체도 안해. 근데 물이 거기까지 딱 들어오구선 빠져 나가니까, 참 정확하 아는데 아닌가 해. 그러니까 아마 사람마다 지나치게 아는 하는 것이, 그것도 좀 뭐 주책없는 거랄까. 웃음. 그런 얘길 한번 들었어요.

응, 그런데 나중에 보니께, 아무것도 아닌 나무 도리깨다 이거여. 그래 인저 그걸 더 얘기하며는, 더 얘길 하며는,(한손의 검지 손가락을 세우고, 다른 한손으로는 동그라미 모양으로 손짓을 하시며) 도깨비 망치 이렇게 기다랗게 나간데, 거기는 인저 이렇게 막아서 여기에 또 돌아가는 걸 만드는데, 여기가 떠배야 하거든. 응, 그래 인저 이게 자기는 여자의 질로 알고 응, 그런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수도 있었다고.(웃음) 난 아는 게 없어요.

【염작리 설화 2】

둔포면 염작리 노인회관. 1993. 6. 29., 황재영, 권민정, 소진희, 정지윤 조사

성찬용(남, 78)

월정사의 유래, 수정사의 유래, 박문수와 행색이 같은 사람 덕에 좋은 일을 한 박문수 얘기, 이성계와 통두란과 주원장 이야기.

(김영호씨가 얘기 좀 하라고 계속 부추키며 큰소리로 “아냐, 나 봐. 용주사께. 용주사”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용주사! 거긴 몰라난 몰라.(청중: 월정사하구. 저 북한강으로 올라가서 거 새끼 꼬던 거 있잖아) (웃음) 수정사 (청중: 잉 그래 거기. 두 군데만 얘기해줘) 월정사에 어느 노스님이 하나 (청중: 아. 이름을 대여. 이름을 대라구) 이름을 어떻게 대.(청중: 몰르겠어?) 몰르지 (귀찮은 듯 언성을 높이며) 노스님이야. 비구니. 저 비구니 스님이거던. 금강산 비경사에 있다가 이 비구니 스님이 어따 절을 하나 마련할라구. 산을 타서 내려온 것이 이 태백산을 내려왔거든. 내려와서 거기 앉아 보니까 거기 절 하나 지을 듯 하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거기다 초막을 치구서 있었어요. 초막을 치고 있다가 하루저녁 한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나거든. 그래서 인제 나가 보니까 호랭이란 놈이 어디서 저 녹의 홍삼. 인저 말하자면 그전에 시집 길러구 쪽두리쓰고 현 시악씨를 거기다 몰어다 놓구서 있거든. 그래 스님이 나가서 순순히 타일렀거든. “사람을 갔다가 그렇게 무시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호랭인 가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비구니 스님이 그걸 자기집있는 초막에다 끌어들여서 인제 구해올 양. 깨난 다음에 물어 보니까는 거기서 천리야. 천리. 저 전라남도 끝에 어디던 모양이지. 거기서 그날 저녁에 대례를 지내고 신방을 하는 저녁인데, 신방을 하러 들어간 걸 호랭이가 가서 훔쳐온거야. 그래 인제 물으니깐 거기라고 하거든. 그래 며칠 몸을 좀 뉘시기해 가지구선 그 남복을 입혀가지구 말야. 자기도 이제 남복을. 비구니니까. 남복을 해야지. 거기를 찾아 갔어요. 그 찾아가니깐 모두 호랭이가 물려간 줄 알았던 게 오니까 여간 반가와 하지 않지. 근데, 신랑집두 부자구 삭시집도 부자야. 그래서 인제 양쪽 집에서 인제 반갑게 다 생각하는 거지.호랭이가 물려간 줄 알았는데 살아 왔으니까.그래 다시 인제 결혼을 하구는 이 두집이서 이런 얘길 했어요. 야, 우리가 그 스님

이 절을 질라구 애를 썼는데 우리 두 집이서 도와주자. 그래 월정사 처음 진것이 그 두 집이서 갔다가 거기 월정사를 초음 진거지. 월정사 거기 월정사가 인저 그 삭시 신랑집에서 갔다 지어준 거지. (청중: 거 스님이 뉘기여, 주지가?) 응? (청중: 주지가 뉘기여?) 주지? (청중: 지금) 스님은 글씨 이름은 몰라. (청중: 시방, 현재) 그런 유래만 내가 들은 뿐이지, 이름꺼정은.

원래 수정사라는 건, 요거 저 서울서 얼마 안되어. (청중: 이건 딴 얘기여 수정사라구) 그전 옛날 숙종 대왕이 불심을 가지구 계시다가 어따 절을 하나 지을라구 한강서 부터 배를 타구 올라가는 거야. 북한강으로, 올라가니깐 거기에서 그 거기가 그 저 (혼잣말로)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거길 가니까는 종소리가 나. 어디서 종소리가 땡땡 들리거던, 그 숙종 대왕님께서 뭐라고 하나면 그 - 저 어느 종소리가 나는지 가보라구. 그러니 어느 인제 신하가 올라가 보니까는 요런 똥그란 돌맹이가 있는데 누가 다래간 물을 딱 끓였는데 거기서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요기서 떨어지면 종소리가 나. (방바닥을 두들기며) 땡 땡. 그래 인저 임금한테다 그렇게 얘길하니까는 그래 거기다 절을 지으란 말이야. 그래 수정사라는게 그렇게 해서 수정사라 짓는 거여. 그때 수정사 질적에 그냥 인부를 막 지려다가 짓는데, 새끼를 파야 하는데 새끼를 그때는 죄 외를 올려 봤거든. 벽을 지면 보루꾸를 쌓지만 그땐 죄 외를 파가지고 그걸 쳤단 말이야. 새끼를 파와야 할텐데, 어따 풀데가 없거든. 그래 한사람이 그 - 고 아래 내려가면 팔당이라는 데, 거길 내려가서는 새끼 풀 사람을 구하러 내려 갔는데. 그 강계 조그만 배를 타구 아주 영감이 있거든. 그래 뭘하러 가느냐구. 그래서 그 인저 새끼 풀 사람 구하러 간다. 그러니까는 (청중: 그 선안이여, 선인) 그 새끼는 내가 다 파 줄테니 그냥 올라 가라구. 아무날까지 그럼 되겠느냐니까, 된다구. 그 올라갔다 그날 내려 오니까는 배, 뱃머리에다가 짚만 수두룩허니 쌓아 놓구 가만히 앉아 있더라 말이야. 아 여보 당신, 파 준대더니 왜 새끼 안 꼬고 그냥 있느냐? 아무거나 새끼 끝을 쥐고서 가지구 올라 가래네. 올라 가면 막 잡아 다녀 술술술술 올라 온단 말이여. 그 수 백 명이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래 어떤 사람은 일부터 잡아 당겨서 이렇게 했거든 근데 마지막 인저 다 연구선 수정사 그 뭐야 왜 엮을 적에 그 마지막 소유로 하니깐 마지막까지 쪽 올라온단 말이야. 나중에 쫓아 내려가 보니까 배 커녕 아무 것도 없지 뭐. 그래 그 수정사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구.

동문서 박어사가 삼도어사를 내려가는데, (조사자: 네) 가다보니까 자기와 행색이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 그 나타나서는 이 박문수는 저거 이상한 사람이니까 어사니깐, 뒤를 밟을 것이다 생각하고는, 이 사람은 태연히 동행하자구 그런단 말이야. 근데 가다가 날이 저물어 잘 때가 되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잠자는 데는 내가 구할 테니 당신은 쫓아만 오쇼 그말이야. 그거 또 이상한 말이니까 어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깐, 그럼 그렇게 허라구. 근데 그 동네 들어가서 큼지막한 집에 가서 방을 얻어놓고는, 앉았지 뭐야. 근데 안에서 그냥 야단법석이야. 그 주인이 나오니까는 물었어. 어사가 물은 것이 아니라 같이 쫓아 온 사람이 묻는단 말이야. 당신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야단이나? 그러니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부가 해산을 하는데 애가 가로 누웠다 이런 말이야. 낳지 못하지. 두 사람이 다 죽게 됐다는거지. 아 볼 수가 없겠느냐구. 아 상관없다구 들어가 보시라구. 아 이 사람이 들어가서 다른 손으로다 이러 이러 하더니 애가 금방 났다 말이야. 박문수가 볼 때 하도 이상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깐 박문수가 자꾸 의심을 하는 거지. 그 식전에 떠나는데, 흠 아마 돈을 얼마 내 눈 모양이지. 그러니깐 그 사람 하는 말이 일신천금이야. 사람의 몸이 천금인데, 사람 둘을 살렸으면 천금이라도 내놔야지 이 이렇게 하느냐구. 그 군말인코 천금을 내놓는단 말이야. 이렇게 보관하라구. 그 박문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어떤 요지경 속에 빠졌다 이권. 그 또 가는 거야. 가다 또 하루 가서 또 자는데, 주인이 또 들락날락 하거든, 그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또 묻는단 말이야. 그나저나

우리 삼대 독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명재경각이야. 지금 셈을 몰고있어서 그런다구. 이 사람이 들어가더니 보면 어떠냐구. 아 아 들어와 보라구. 아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거야. 다른 거 안 보구 손 짚만 몇 번 하면, 허른 흙 (숨을 들이마시며)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 또 그날 저녁 자고 또 나오는데 돈을 또 몇 푼 주는데 주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일신천금인데 천금을 내놔라 이거지. 그 천금을 내놓는데 내 가져가진 않는다. 니 집에 두고서 내 어음만 써다오. 그래가지곤 가는데, 그 이틀 날 또 가는데 어디를 가는데, 어느 산골루다 그냥 대궐은 산골은 날이 저물어 간단 말이야. 어디 집이 없어. 가다 올라가다 보니까 큰 아름더리 소나무가 그냥 뻗뻗히 섰는데 거기 가더니 이 사람이 여기서 쉬어가자 그말이야. 그뒤 같이 앉아 쉬는데 쉬는데 요 사람이 일어나서 소나무뒤로 짝 돌아가더니 행방불명이야. 오간데가 없어. 나오지도 앓구. 그래 이 박문수 박어사는 말하자면 당황한 거지 같이 가던 친구가 행방불명이니까는 당황하는데 당황하던 중에 저 아래께 내려다보니까 등불이 까불까불하거든, 그 또 올라오니깐 가만히 앉았다가 자기도 소나무 뒤로다가 살짝 몸을 감춰지. 근데 여자, 처녀들이 올라오는데 한 처녀는 시루에다 떡을 해서 이고 한 처녀는 등을 두고 이렇게 오라고더니 그 성황나무 말하자면 성황나무지, 거기다 놓고는 이제 비는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내일이 오며는 돌아가실 텐데 산실령님 살려달라구. 그더 냥중에 참 통곡을 까지 여자가 한단말이야. 소나무뒤에서 다 들었지. 게 슬금슬금 나가면서 놀라지 말라구, 나 사람이라구. 그 내용을 잘 알잖아. 박어사가, 내려가자구 내려가자구 그 집에서 자구서는 그 어음을 쥐서 그 자기아버지 돈을 축을 낸 돈이거든, 그게 그러니깐 그어음을 주어서 살렸거든, 그래서 그 박문수 박어사가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지.

이조 5백년의 제일 첫째왕이 이성계 씨거던, 이성계씨가 (청중: 재미스럽지? 네.) 이성계씨의 뭔가 쿵 그걸 보고 말하자면 비선가? 그것이 통두란이여 통그란.(조사자: 네, 통그란.) 통그란인데, 이성계씨가 이성계씨는 이 한국을 생각을 안하고 중국을 생각하고 들어갔거든. 그래 가서 중국사람들라구, 가 갔구 통그란이는 또 역시 중국을 가서 넘보고 들어 간거구. 근데 압록강을 지나가서 보니까 조그만 집 있는데 노할머니가 술을 팔고 있어요. 술을 그래 처음 먼저 들어가길 통그란이가 먼저 들어갔어. 그 조금있으니깐, 그 행색이 같은 사람이 또 들어온단 말이야. 그 조금있으니깐 또 세 사람이 형색이 똑같아. 그런데 이 할머니가 술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오는데, 상아리가 부러게 안주를 차려서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갔다준다 말이야. 먼저 갔다는 사람은 그러니깐 통그란이는 사람은 내가있는데 지금 나중에 온 사람은 먼저 주나 하구 인저 속에다 불을 품고있는데, 그 냥반이 먹고 간 뒤에는 또 인제 상을 차려가지구 오는데 그 다음 사람한테는 들어가거든 아 근디 짜장한 통그란인 속에서 불이 나지 불뚝뚝 인저 하는데, 그 냥반이 먹고 간 단말이여 애 나중에 뭐여 또 차려 나오는데 개다리 소반에 술 한 사발에 놔가지구 짬지 한 조각 놔서 딱 갖다 주거든. 거 뻗이 나선 술상을 패대길 치면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한대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상다리가 휘지게 안주를 해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개다리 소반에다가 아니 짬지쪽 하나만 주느냐구. 그러니깐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게 하영든 너야.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 상을 받은 사람이 누군줄 아느냐 이거지. 그러니 뭐이거 수재명이라고 구천자거든. 중국을 통치할 수재명이고, 두번째 들어온 사람은 이성계데, 한국을 차지할 사람이야. 그러니깐 너는 나중에 온 이성계 꿈무늬를 쫓아다녀야 명조상 노릇을 한다 이거지.아니 그 그 소리까지 들었으니 밤낮도리 이성계를 쫓아 찾으러 다니는거지. 아 한군데를 가다 보니까는 그 덩불 구러미가서 박박박박 한단 말이야. 그 통드란이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여우란 놈이 해골을 하나 가지구 와서 물에다 닭아가지구 써 보구 닭아가지구 써보구 그러거든, 그러니깐 그 가만히 있지. 저 꼴을 좀 보느라구. 한참 있다 참 나오는데 아주 이쁜 여자가 옷을 싹 잘 입구선 싹 나온단 말이야. 그 저놈의 행체를 알아 보리라하구,뒤꿈무늬 찾아서 쫓아 가는거지. 그 어딜 가느냐면, 지금 저 뭐야, 청와대 그 길

이가 효자동이거던. 효자동 골목길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 쫓아 갔어. 쫓아 가니까, 큰 기와집이 있는데, 그 집일 들어가더니 장창 뭐야 곳을 한단 말이야. 저런, 요기로구나! 저놈이 나오거던 단박에 싸 죽이리라. 잔뜩 인제 있는데, 아 영 안나오거든, 그래 주인을 불러서 그 사람 잠깐 내보내라구. 그 들어가더니 그저 요 낭구가 있구, 요 낭구 밑에다가 통드란이가 앉았구, 요기 또 잔목이 내려가는데, 요기 나와 앉았네. 요기와 뒤를 통드란이 뒤를 두고, 손을 쓰랜단 말이야. 아 그거야 재미, 앞으로 또 쏘기야 뭐한테 뒤로 가는 놈 쏘기야 그 뭐 할때마다 쏘니까는 아 뭐, 가져다놓구 그 또 한번 쏘니까는 또 역시 받아서 여기다 놓고. 그런 사람들이 활이 오공이거든. 다섯 살. 살을 여섯개 안갖고 다니다 말이야. 오공을 다 쏘단 말이야. 다 받아 놓고서 그 자리에 돌아 앉아서 너 여기 잠깐 있어라. 내 들어가서 수습하고 나올테니. 들어가더니 뭐 재가지구 나온단 말이야. 너 나하구 같이 갈 데가 있으니까자구. 이거 화살 다섯 다 받은 놈한테 하자는 대로 해야지, 안 하면 도중에 쫓아가서 거 시방 저 삼각산 그거 꼬다릴 기어 올라갔단 말이야. 기어올라 갔는데, 이 하영든 돌 이렇게 있는데, 너 힘깨나 쓴다니까 이 중얼구 문을 열어라 이 말이야. 중얼구 앞문 열으니 열려?! 안 열리지. 고때 고런 힘을 가지구 뭘 뉘 하느냐? 이 여자가 술을 뭐 대문짝처럼 문이 확 열리는데, 그 안에 그냥 아주 금은보화가 가득 해. 무당 짓을 하니께 갖다 둔 거지. (방바닥을 탁탁 두드리면서) 너 이거 어디다 쓰건지 아느냐 이거지. 아 알께 뭐야. 이것이 이성계가 나라를 차지하면 도이⁴⁾ 필요해. 이게 그때 쓸 거야. 이게 그때 쓰라구 그것도 모르는게 뭘 대국 어찌구 쫓아 다니냐구. 다시 아무 소리말고 이성계 꿈무니 쫓아 다녀가지구선, 그래 명조상은 됐지. 천하일세라구. 통가 집안 이성계가 사승을 해서 천하일세라구. 천하일세가 의정부 방향에 살아요.

4. 배방면